다산포럼

‘낭만에 대하여’

송 재 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단군 이래 최악의 불경기에다가 최순실 게이트까지 겹쳐 어수선하고 스산한 어느 날, 택시 안에서 ‘영원한 낭만 가객’ 최백호가 부르는 ‘낭만에 대하여’를 듣노라니 가슴이 뭉클해진다.

“궂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릴 들어 보렴.”

문득 대학에 다니던 시절이 아련히 떠오른다. 그때는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서 ‘도라지 위스키’를 잔으로 팔았다. 말이 위스키지 막소주에다 색소를 첨가했을 것 같은 조악한 술이었으나 그래도 위스키랍시고 훌쩍이면서 인생과 우주를 논하며 ‘개똥철학’을 펼쳤다. 그렇게 그 시절엔 낭만이 있었다.

그런데 2017년 1월, 이 땅엔 낭만이 사라졌다. 왜 그럴까? 낭만에 젖을 여유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출근 시간에 버스나 전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 모두가 생활에 찌든 표정들이다. 그들의 얼굴엔 팍팍한 삶의 찌꺼기가 묻어 있다.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오로지 대학 입시 준비에 골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대학도 그들에게 낭만을 즐길 여유를 주지 않는다. 취업이라는 더 큰 산이 가로 놓여있는 것이다.

알뜰하게 우리의 건강을 챙겨 주는 의학 전문가들도 우리에게서 낭만을 뺏어가고 있다.

‘하루에 술을 석 잔만 마셔라’, ‘나트륨 섭취를 줄여라’, ‘담배는 백해무익하다’ 등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건강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이들이 권고하는 대로 수칙을 지키며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의 권고는 마치 우리에게 ‘중처럼 살라’는 말로 들린다. 수도승처럼 엄격한 계율에 따라 살면 수명이 다소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중처럼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중처럼 사는 삶에 낭만이 깃들 여지는 없지 않을까.

이 시대는 사람들에게 낭만을 허용하지 않는다. 복잡한 현대사회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으로서의 역할만 강요할 뿐이다. 이 기계는 쉬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 대학교수들은 객관성 없는 연구 업적 때문에 학문 아닌 학문을 하는 체해야 하고, 기업체의 사원들은 가정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숨 쉴 틈 없는 업무에 매달려야 하며, 국회의원들은 뻔뻔한 거짓말을 항상 궁리해야만 한다. 그러니 어디에 낭만이 끼어들 수 있겠는가.

그러나 각박한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옭아매더라도, 아니 그럴수록 숨 돌릴 마음의 여유가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최순실도 잠시 잊고 세월호도 잠시 잊고, 무거운 일상의 짐도 잠시 내려놓고 낭만적 환상에 젖어 보는 것은 어떨까? 그것이 치기 어린 감상이어도 좋다. 또 그 속에서 약간의 일탈을 꿈꾼들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첫사랑 그 소녀는/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 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슬픈 뱃고동 소릴 들어 보렴.”

첫사랑의 소녀 또는 소년을 떠올리며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만은 현실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 낭만의 세계에 들 수 있다.

낭만의 세계는 순수하다. 낭만의 세계에는 편견도 없고 규제도 없고, 억압도 없고 이편저편의 경계도 없다. 갈수록 비정해지는 사막 같이 메마른 세태 속에서 한 움큼 오아시스의 역할을 하는 게 낭만이 아닐까?

‘그야말로 옛날식’ 사람이라는 핀잔을 들을지 모르지만, 오늘 최백호의 노래가 내 가슴을 때리는 것은 낭만에 대한 타는 목마름 때문일 것이다.

교단에서

털고무신

김 진 구
우산중학교 교감

지난 연말 교장선생님이 교직원들에게 털고무신을 선물했다. 말바우 시장에서 구입한 7000원짜리 말표 검정 털고무신이다. 실내화로 털고무신을 신어보겠다고 의향을 밝힌 모두에게 한 켤레씩 돌렸다.

나는 수 년 전부터 학교에서 여름에는 흰고무신, 겨울에는 검정 털고무신을 신었다. 작년 초봄까지 신다가 신발장 아래 칸에 넣어 두었더니 누구도 손대지 않고 제자리에 있다. 두 짝을 마주쳐 먼지만 탈탈 털고 신어보니 그 감촉 그대로다. 고무의 신축으로 전체 발등을 감싸주며 발가락을 약간 조이는 느낌은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이란 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다. 활동적이고 보온도 좋다. 실내외 어디서건 신을 수 있는 편한 신발이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눈발이 날릴수록 노루털같은 누릿한 털은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

산사 댓돌 위에 놓인 털고무신. 찬바람은 추녀를 지나가고 풍경소리는 이 신발 속에 고이는 듯하다. 윤이 날 정도로 희디흰 고무신들이 코끝을 맞춰 정갈하게 놓인 것은 수양의 시작이요, 끝이라 할 수 있는 조고각하(照顧脚下)의 결실이 아닌가. 겨울 마을회관에 놓인 할머니들의 털고무신도 서로 온기를 나누는 듯 포근하고 정겹다.

추운 날 떨면서 등교한 학생이 교실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입구에서 신발을 벗는다. 실내화를 교실 신발장에 두고 다니니 현관에서 교실까지는 양말을 신은 채로 들어간다. 여간 불편한 모습이 아니다. 모든 학생이 그렇지는 않지만 실내화를 놓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다. 하교 때에도 교실에서부터 신발을 들고 맨발이나 양말로 내려와 출입구 근처에서 신발을 신는다.

여름철 비 오는 날이면 더욱 난감해진다. 규칙이 몸에 밴 학생은 젖은 채 올라가고, 대부분의 학생은 그냥 대충 신 신고 올라간다. 이런 모습으로 학생과 교사가 마주치면 서로 난처하다. 실내화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고 학생들을 마냥 나무랄 수만은 없다. 선생님 중에도 출근할 때 신은 신발 그대로 근무하고 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교장선생님이 교직원들과 실내외에서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털고무신이다. 한 켤레씩 선물하고 본인 스스로 털고무신을 신고 출장도 다녀서 모두들 한바탕 웃고 따뜻한 방학을 맞이했다.

교실이나 복도 바닥의 재질이 학교마다 다르고 또 각 학교의 사정이 있겠지만 실내화는 이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등하교뿐만 아니라 운동장 체육시간을 제외하면 학생들이 흙 밟을 일이 없다. 실내화를 신고 운동장에 들어갔다고 소리 듣고, 비 오는 날과 살얼음 추운 날 눈치 보며 등하교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 아닌가. 운동장 수업이 끝나고 교실로 갈 때 잘 털고 들어간다는 약속만 지켜진다면 말이다.

오바마가 굿바이 연설을 했다. 그의 지지는 변함이 없었고 마무리는 아름다워 보였다. 1960년대, 그러니까 겨우 반세기 전에야 완전한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던 흑인이 하얀 집의 주인이 된 것 자체가 새 역사이다. 백인들의 정치사회에서 두 번이나 대통령이 된 그의 저력은 무엇이었을까. 얼마 전 백악관이 공개한 몇 장의 사진은 우리 상식으로는 가관(?)이었다. 어느 위치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위한 몇 번의 파격 연출은 누구나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국정연설 초안을 논의하는 오바마와 그 참모들의 사진은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았다. 약자를 배려하면서 국민의 마음속으로 다가간 오바마의 명연설은 이런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었다.

오바마는 구두 신은 왼발을 탁자에 딛고 서서 두 손을 내저으며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모습이고, 맞은 편 두 참모는 가장 거만하게 편한 자세로 소파에 등을 기대고 구두 신은 두 발을 꼰 채 대통령 앞 탁자 위에 턱하니 올려놓았다. 이 정도의 사진은 연출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반복된 습관의 축적이 아니면 어렵다.

문화의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는 격식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전할 메시지를 잘 준비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공통 인식이 있기에 가능한 장면이다. 사진 못 본 분들 ‘국정연설 초안을 참모들과 논의하는 모습’을 검색해 보기를 권한다.

구두든 실내화든 교복이든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나 규칙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 교육현장도 따뜻한 마음으로 차가운 결정을 내릴 사안이 많아졌다.

기 고

이번에는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

양 성 관
동강대 교수

박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촉구하는 열 두 번째 촛불집회가 지난 14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이미 여섯 번째 촛불집회에서 참석 인원이 200만명을 넘었으며, 매주 집회 때마다 비슷한 숫자가 모인다고 보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민적 분노와 우려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경제적 손실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경제적 피해 규모가 56조원, 국민에게 미치는 직접 피해액은 35조원이라고 분석한다. 35조원은 내년 정부예산 400조원의 약 9%에 달하고, 지방정부 중 가장 큰 서울시의 내년 예산보다 5조원 더 많다. 월 200만원짜리 공공일자리 연 150만개, 월100만원 규모 노인공공일자리 연 300만개를 창출할 수 있는 재원이다.

아직도 식지 않은 국민적 분노와 허탈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는 추정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왜 이같이 엄청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일까? 답은 하나다. 대통령을 잘 못 뽑아서 치르는 혹독한 대가인 것이다. 무능하고 자질 없는 대통령과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부가 국민에게 얼마나 커다란 직·간접적인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지를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결정날짜가 머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에서 현 대통령에 대해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기에, 만일 헌법재판소가 3월 이전에 탄핵 결정을 한다면 19대 대통령 선거는 올 봄이나 여름에 치러지게 된다.

지난 주 중국에 머무르는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우리와 중국이 비교되서다.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곳곳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시 규모와 관계 없이 시내 거리가 착착 정비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면서 흔들리는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결정되면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선거 정국으로 변화될 것이다. 촛불민심을 달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번에야말로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할 때다.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덕목이 있겠지만 타산지석이라고, 박 대통령을 보면서 차기 대통령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경륜과 품성, 리더십의 세 가지 덕목에서 생각해 보았다.

첫째는 경륜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 속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기쁨과 슬픔, 아픔 등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런 측면에서 오랫동안 청와대생활에 젖어 국민의 삶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해 왔다. 진정한 리더는 구성원의 밑바닥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러기에 이번에는 국민들의 삶 속에서 국민의 아픔을 함께 해 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세상경륜이 풍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인간다운 품성이다. 거짓말과 꼼수로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도덕적·윤리적인 품성을 갖추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정도(正道)를 걸어온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다. 이같은 맥락에서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은 진보와 보수의 대립을 극복하여 모두가 하나 되도록 이끌어 갈 수 있는 품성을 갖춘 인물이다.

세 번째는 리더십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통치권자이다. 이번에는 유난히 많은 후보자들이 출사표를던지고 나섰다. 우리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아버지가 대통령이었다고 딸까지 대통령으로 찍었던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된다. 맹목적인 투표성향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자신과 주변의 욕망을 버리되 진정 국민을 위해 나서고, 촛불민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정치·경제·사법 등 모든 면에서 새롭게 개혁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을 이번에는 뽑아야 한다.

社 說

전국 최악의 소음…광주 군공항 이전해야

광주공항의 항공기 소음이 전국 공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항공기 소음 한도를 초과하는 지점도 전국 공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광주시가 발간한 ‘2016 환경백서’에 따르면 광주공항의 평균 소음도(2015년 기준)는 88웨클(WECPNL)로 전국 15개 공항 중 가장 높았다. 전국적으로 80웨클을 넘긴 공항은 군산(85웨클), 청주(84웨클), 대구(83웨클) 등 5곳이었다. 이들 공항의 공통점은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는 겸용 공항으로, 이는 군항기가 소음의 주원인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광주·전남 지역 공항의 평균 소음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광주는 2012년부터 3년간 87웨클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88웨클로 높아졌다. 무안공항의 경우 2012년과 2013년 64웨클에서 2014년 65웨클로 증가했다. 평균 소음이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군용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과 민간 항공기 운항 횟수 증가 때문이다. 2012년 1만899회였던 광주공항 민간항공기 운항 횟수는 2015년 1만2258회로 20%가량 늘었다.

특히 민군 겸용 공항인 광주공항은 소음 측정 장소인 7곳 모두 항공기 소음 한도를 넘어섰다. 광산구 송대동은 무려 94웨클, 우산동은 91웨클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근 지역은 항공기가 지나갈 때 상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다.

사실 광주공항의 소음 문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소음 피해 대책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손을 놓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소음의 주범인 군공항 이전이다. 광주시와 당국은 하루빨리 군공항 이전 절차에 착수해 시민들을 소음 스트레스에서 해방시켜야 할 것이다.

이재용 구속영장, 정경유착 근절의 계기로

박영수 특검팀이 뇌물 공여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다. 여기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 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최 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800만 원 후원 등이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고 봤다.

특검팀은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불러 22시간 넘게 조사한 이후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다고 한다. 국내 최대 대기업 집단인 삼성 총수의 구속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이 경영 공백 상태에 빠지고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이 죄질이나 유사 사건 전례 등을 감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원하는 국민 여론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수수 의혹은 여러 비위 의혹 중에서도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이 오랜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액티브 시니어

1년 전쯤, ‘1세대 철학자’로 불리는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서울 서대문구 한 카페에서 처음 뵈었는데 100세를 눈앞에 둔 1920년생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했다. 노인들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지팡이와 보청기도 사용하지 않았다. 지나온 인생을 얘기하는데 어제 일인 것처럼 정확히 기억해 냈다. 요즘 청문회에서 ‘어제 일도 생각 안 난다’고 말하는 증인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흔히 얘기하는 ‘70대는 해마다, 80대는 달마다, 90대는 날마다 늙는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하지만 김 교수가 어려서부터 건강 체질이었던 것은 아니다. 50세 무렵부터 수영을 배워 지금도 매주 3회가량 하고 있는 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다. 그는 건강비결로 ‘나이를 먹어도 멈추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을 꼽았다. 지난 13일에는 평생 교육자라는 사명을 갖고 한국 교육과 문화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유일한상’을 수상했다.

일본 시바타 도요 할머니는 92세에 아들의 권유로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해 98세 때인 2010년에 첫 시집 ‘약해지지 마’를 출간했다. 출간 경비는 자신의 장례비로 모아 두었던 100만 엔으로 충당했다.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 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희망과 용기를 전해 주는 할머니의 시집은 일본에서 160여만 부, 국내에서도 출간 4년만에 100쇄를 찍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최근 105세 된 프랑스의 한 노인에 관한 뉴스도 눈길을 끈다. 로베르 마르샹이라는 노인인데, 파리 인근 경륜장 트랙을 1시간 동안 92바퀴(22.547㎞)를 달려 105세 이상 연령대의 세계기록을 세웠다는 것이다. 외신은 그가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105세도 아직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한다.

‘100세 인생’ 시대에 활력 있는 삶을 추구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들이 주목받고 있다. 새해 들어 세웠던 계획들이 ‘작심삼일’(作心三日)이 되는 때, 이를 거울삼아 신발 끈을 다시 고쳐 묶는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